창가호 2018.12.05 (수)

# KBSHIZLIA A.

**발행인** | 김진석 사장 **편집인** | 조현국 이사 취 재 이정민, 장선영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비즈니스

| **전화** | (02)2600-8600

# 2018년도 KBS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 경영 불확실성 해소·연말 실적 기대감 높아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경영 현안인 2018년도 KBS업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 예상된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시설관리 수탁비는 전년 대 반면, 올해 기술사업은 대형 공사업 수주가 거의 없어 비 약 9억 원이 늘어난 234억 원, 운전업무 수탁비 내년을 장담하기 어렵고, 교육사업 또한 규모를 줄이 는 약 10억 원이 늘어난 142억 원이 됐다. 세부 내역 긴 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 을 보면 사옥관리가 전년 대비 2% 증가했고, 환경관 구된다. 다가오는 연말, 비즈니스 인들의 열정과 분발 리와 운전업무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라 각각 이 필요한 시기이다. 12.4%, 7.5% 인상됐다. 인상된 수탁비 금액은 올

무 위·수탁 계약이 마침내 타결됐다. KBS와 KBS비즈 KBS비즈니스 한 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큰 불 니스는 지난 21일 2개월여를 끌어오던 시설관리와 환 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연말 실적에 대한 관심도 높 경관리, 운전업무 등 위·수탁 업무 협상을 마치고 계약 아지고 있다. 지난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한 수신 을 체결했다. 수신기술과 견학홀 안내, 수원센터 견학 기술은 지난해보다 적자를 절반 정도 줄일 것으로 전 홀 안내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 위·수탁 계약도 수탁비 망된다. KBS아레나와 제2체육관을 활용한 대관사업 규모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계약 체결 은 매출과 수익 모두 전년보다 늘었고, 스포츠 사업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늘었다.

## "KBSUIZUC イトゼ"를 はなけるトロコ

|조현국 이사 |



우리 회사는 우리나라 최고 의 공영방송인 KBS 식구들이 공 공성 높은 고품질 콘텐츠 제작 이라는 핵심 업무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본사의 '덜 핵심적 인' 업무를 '더 핵심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KBS 방송국 건물의 전기와 공조시설 운영, 온갖 사무실과 일터 청소, 시청자들의 수신환경 개선, KBS 견학홀 안내, 방송차량 운전업무 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월드의 체육사업 을 운영하고 KBS아레나와 부산·울산·창원의 KBS홀을 이용해 문화체육 행사를 주최하거나 유치하는 일도 합 니다. 본사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와 결산자료 등 각종 지표는 KBS비즈니스가 KBS의 각종 위·수탁 사업을 고 객의 요구에 맞춰, 고품질로 저렴하게 수행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의 위·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KBS비즈니스는 본사 직원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 현 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소통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문에 종사하 는 내부 구성원에게도 우리 회사가 어떤 어려운 문제 점에 직면해 있으며 서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서 직원 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고 서로를 연결해줄 필요가 있습니 다. 바로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창사 이래 처음 시도하 는 'KBS비즈니스 사보'의 발행 목적입니다. 사보의 제 호는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이사인 본사 보도그 래픽실 이석인씨가 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 지면을 통해 비즈니스 직원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본사 직원들이 비즈니스가 하 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 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내년 KBS비즈니스 창사기념일 홈페이지가 달라집니다

으로 예상된다.

재하여 플랫폼 내부에서 고객관리 업무가 이루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는 점이다.

KBS비즈니스 홈페이지가 창사 30년이 되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지난 6월 초순부터 운영된 2019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전면 개편을 단행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업무혁신 TFT'의 결과물이 명실공히 KBS비즈니스의 디지털 시대를 견인할 것 다. 업무혁신 TFT는 간사인 이정민 기획사업팀장을 비롯하여 각 사업부의 차장과 팀원, 외부자문단, 현 이번 홈페이지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최신 기술을 ERP 개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1차 회의 활용한 반응형 웹이라는 점이다. PC, 태블릿, 스마 를 시작으로 총 5차에 걸쳐 진행됐다. TFT 회의를 트폰 등 어떤 기기에서든 화면의 크기를 스스로 조 통해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콘텐츠 구성안, 고 절하여 이용자 환경에 최적화시켜주기 때문에 매우 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 편리하다. 두 번째 특징은 AI(인공지능) 기능을 탑 보 및 마케팅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주요

#### ▶ 통합 홈페이지 구성

현재 KBS아레나, 스포츠월드, KBS비즈니스 등으로 나눠진 홈페이지가 하나로 통합된다.

#### ▶ 사용자 중심/최신IT기술 접목

최근 홈페이지 트렌드를 반영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가 구축된다. 동영상 인트로 는 물론 최신 IT기술(VR, 360도 카메라)을 활용한 최 첨단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 ▶ 디지털 소통 강화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할 홍보 미디어센터를 구축하여 SNS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및 고객과의 소통 강화 에 나선다.



# 화제의 비즈니스인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올 한 해 동안의 부서별 사업실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성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정적인 경영수지의 밑돌을 놓은 본사와의 위·수탁 계약 체결이다. 경영기획부의 신무석 차장은 정연한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본사 유관부서 담당자들과의 수탁계약 협상을 진행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 연초 목표보다 연간 목표 상향 달성이 유력시되는 대관사업의 성과도 고무적이다. 대관업무 담당인 박준영 사우는 치밀한 협상력과 업무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사업부서로는 드물게 연초 설정했던 목표의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 다가오는 연말 모든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분발을 기대하며 두 사우를 만났다. [편집자 주]



경영기획부 **신무석 차장** 

#### "이번 협상 결과에 만족하시는지?"

본사 경영상황이 어려워 수탁비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 예상했다. 올해 8월 부터 11월까지 대략 4개월간 전사적 차원의 노력으로 시설관리 수탁비의 경우 전 년 대비 약 9억 원이 증가하여 234억 원에 합의하였다. 만족스럽다는 표현보다 본 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선을 다한 결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 "협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인사이동으로 기존 위수탁 담당직원이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여러 루트를 통해 계열사사업부 새로운 담 당자와 신뢰를 쌓으며 최고의 방송시설 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는 비즈니스 직원들의 숨은 노력을 어필하였다.

특히 비즈니스 경영진분들이 본사와 가교역할을 해주어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협상할 수 있었다. 본사와 비즈니스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신뢰로 합리적 인 협상을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 "올해 협상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면?"

지원직 환경 근무자들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이 별도 배정되었다. 환경직 사우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수탁비용으로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근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협상 체결을 마친 소회는?"

본사 유관부서와의 상호 신뢰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평상시 본사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되었을 때 비즈니스의 상황 과 숨은 노력을 어필하기도 좋고 협상의 물꼬를 트기도 쉽더라. 앞으로는 이러한 상호 신뢰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한다.



기획사업팀 **박준영 사우** 

#### "대관사업수익이 전년 대비 3억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고부가가치 대관 행사를 7건 이상 유치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더불어, 대관사업 수익의 마의 고지라고 여겨졌던 20억 원 달성을 위해 항상 ONE TEAM을 외치며 물심양면 도와준 이정민 팀장님이 함께 해주었기에 가능했다.

#### "올해 실적을 견인한 전략이 있었다면?"

매년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들과의 연락 등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고정 수입을 확보한 것과, 아레나 공연행사를 유치할 때 제2체육관을 동시 대관하게 하 는 전략이 유효했다.

#### "LED 전광판 교체 작업이 있었다. 대관수익 향상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LED 전광판 교체공사는 기획사업팀의 숙원 과제였다. 하루걸러 하루씩 고장 나는 LED 때문에 사용 횟수도 현저히 떨어져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다행히 지난 8월 LED 전문 업체와의 탁월한 협상을 통해 무비용으로 전면 교체공사를 진행하여 9월부터는 LED 사용도 다시 늘어나 매출에 상당히 기여했다.

#### "올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행사는?"

KBS에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번이나 KBS아레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생방송을 진행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주관방송사로서 명성을 높이는데 KBS아레나가 이바지하였다는 것에 가슴이 뿌듯했다.

#### "내년도 대관사업 추진 전략은?"

정해진 날짜에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은 대관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좌우 된다고 본다. 고부가가치 대관을 더욱 많이 유치하여 다시 한 번 역대 최대 매출 기 록을 갱신하겠다.

## KBS스포츠예술과학원 · 한국여자농구연맹 업무 협약 체결

KBS비즈니스 2층 회의실에서 'WKBL 은퇴 선수 및 지도자 진로적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WKBL 이병완 총재와 KBS비즈니스 김진석 사장이 참석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양사 간에 향후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을 논의했다.업무 협약 내용으로는 WKBL 은퇴선수를 위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인 심판, 경기 요원에 대한 교육 시행, 연령별 유소녀 교육 매뉴얼 개발 등을 담았다.

양사는 WKBL 은퇴 선수 및 지도자를 위한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고려해 향후 은퇴후 진로 설계 및 커리어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맹에서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유소녀클럽, 유망주 캠프와 연계하여 지도자로 파견하는 등 은퇴 선수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 #84612212

# 비즈니스★가을소풍





대전지사 오천항 쭈꾸미 낚시 (10/18)이날 쭈꾸띠가 유난히 잘 집該했다고.



청주지사 박달재 자연휴양림 (10/16)
공기 같은 곳에서 떠는 술은~ 상당감나이오.



광주·전주지사 순창 강천사 (10/26)"단풍도 물들고, 내 나라도 물들고···".



제주지사 한라수목원 (10/26)11½ 소등도 급(?)이 다른 제주지시다.



● 부산지사 거제도 (10/19) "이 구역의 7분대공은 나야두 나"





수원지사 광교산 둘레길 (10/12)경치는 병풍, 우리는 비즈니스 명품!







● DMC사업소 하늘공원 (11/7) DMC를 이끌어갈 젊은 사우들의 점프샷



기술사업부 남산 둘레길 (10/24)둘레길 끝자락 정상주(?)





# KBS스포츠월드 숨은 주역들



## KBS비즈니스 사보는 그들의 하루를 들여다본다.

전국 최대규모 종합스포츠센터이자 12개 종목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체육시설인 KBS스포츠월드. 이곳에선 이준호 스포츠사업부장을 필두로 14명의 직원과 강사, 도급 직원, 환경 및 경비근무자 등 총 85명의 인원이 일하고 있다.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로 각 구성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편집자 주]

#### "나는 우리 스포츠사업부가 최고라고 생각해"

생활체육관 건물 2층 스포츠사업부에서 만난 영원한 캡틴 이준호 부장은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고민이 많다. 반가운 건 인근 마곡 지구가 뜨고 있다는 것이다. LG사이언스파크 등 현재 56개 기업이 입주한 데다 앞으로 96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면 마곡지구에는약 16만 명의 상주인구가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틈새를 노려 LG사이언스 홍보팀과 제휴도 하고 셔틀버스도 배치하는 등 마곡지구 회원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움직였다. 역시 스포츠사업부를 이끄는 전략가다웠다.

회원들의 고충에 관해선 어떤 이야기든지 귀담아들어 '경청왕'이라 불리는 이성 태 차장은 최근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으로 회원들과 스포츠월드를 찾는 방문객 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에 기쁘다. 무인요금 정산기와 정산소에 신용 카드 리더기를 설치하여 스포츠월드를 찾는 회원과 방문객 차량이 원활하게 출 차할 수 있게 하였다.

대폭적인 시설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골프장 대변신에 기여했던 윤준석 사 우는 최근 빔프로젝트 23개 타석 중 17개를 교체하여 회원들의 만족도를 극대 화했다.

종합안내실 근무경력이 있어 회원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양현주 사우는 영업 장을 점검할 때마다 회원들이 반가운 인사를 해주며 때론 떡 같은 먹을거리도 챙겨준다고 했다. 이제는 회원들과 정이 들어 가족 같이 느껴진다고 한다. 과묵하지만 은근히 웃기는 반전매력 임성진 사우는 올해 7월 근무지를 옮겨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다. 많은 업무 중 락커 업무의 경우 회원들이 분실한 물건을 찾아 고맙다고 인사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KBS아레나 건물 지하 기계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스포츠사업부의 숨은 주역 시설 사우들이 있다. 스포츠월드가 문을 연지 30년이 지나 시설노후화로 민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아 이곳은 기피부서 1호다. 취재하러 간 날도 골프장 1층화장실이 막혀 칼바람 추위를 온몸으로 받으며 공사를 하고 있다. 전기, 공조, 영선, 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9명의 사우들. 이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지만 다른 일이 더 많아 늘 바쁘다. 최근엔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건물 외벽의 손상을 막는 공사도 진행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협화음 없이 기계실을 이끌어가는 정재영 차장과 묵묵히 자기 몫 이상을 해내는 이경수, 김정대, 조영민, 최지선, 김대길, 김오년, 장동원, 이근표 사우들. 스포츠월드를 찾는 회원들은 이들이 있어들 고맙고 행복하다. 이들에게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냐?"라고 물었다. 이들 모든 당역하 두 같은 대단을 해다



"그건 스포츠월드를 찾는 우리 회원들이 즐겁게 운동할 때죠."